

#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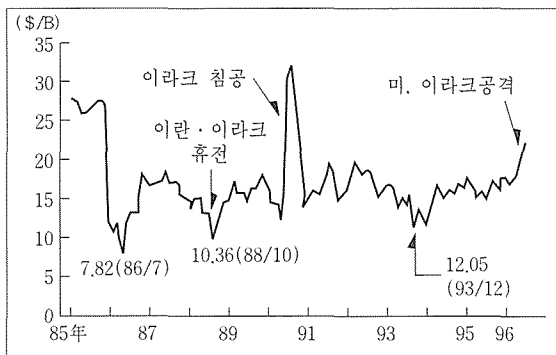
## 석유의 특징

국제원유가격은 '96초부터 예상외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에 이라크가 UN과 부분적인 석유수출재개를 합의하여 원유시황은 여름 이후 약세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9월 후반에 미군의 이라크 미사일 공격으로 국제유가는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WTI원유는 배럴당 25달러, 중동의 두바이원유는 22달러 수준으로 '90년 걸프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후에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두바이 원유가 21~22달러로 전년초 대비 5~6달러 높게 형성되고 있다.

두바이원유의 월평균 현물가격의 추이를 보면, 유가가 폭등한 '86년부터 최근까지 걸프전쟁시기를 제외하고 대략 10~18달러 범위에서 움직였다. 이것은 석유가 농산물이나 비철금속등 다른 1차산품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수급이나

두바이 현물가격 추이(월평균)



<자료> PIW 기타자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

투기자금의 동향에 따라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 시황상품으로서의 특징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NYMEX의 석유선물시장이 세계 원유시황을 선도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최근 원유가격 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대의 이유는 대부분의 시장관계자의 예측 이상으로 세계 석유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세계석유수요가 아시아의 개도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연초 전망을 웃돌고 있는 반면, 북해등 非OPEC의 증산속도는 예상보다 밀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수출재개로 60~70만B/D(6개월에 20억달러 상당)의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계속 어긋나는데다, 사우디 후세인의 행동을 시장관계자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 메이저의 재고축소

최근 유럽·미국시장의 경쟁 격화로 정제·판매부분의 수익이 대폭 악화되어, 메이저등 대규모 석유회사가 코스트 절감을 위한 재고축소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올해 석유와 석유제품의 재고량은 과거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봄에는 환파와 호경기에 의한 석유수요의 급증과 정유공장의 사고등이 겹쳐 석유제품 수급이 타이트 하여, WTI는 일시적으로 24~25달러까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OPEC의 원유생산량은 '96년 1~3월 2,570만B/D에서 7~9월 2,590만B/D로 증가했다. 이는 현재의 생산 할

당량 2,530만B/D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으나 비교적 생산 추이는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최근 자국의 생산쿼터(236만B/D)를 무시하고 300만B/D를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우디·이란등은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원유시황의 호조로 심각한 내부대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OPEC회원국의 잉여생산능력은 사우디가 약 200만B/D, 쿠웨이트와 UAE가 각각 약 50만B/D인 반면 기타 회원국은 거의 추가 생산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잉여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걸프3개국이 생산쿼터량을 거의 준수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견조한 원유시황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걸프전쟁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쿠웨이트와 사우디는 지금은 증산보다 가격중시에 의한 石油收入 확대정책이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83년 이후 만성적인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려온 사우디가 원유가격 상승의 최대수익자가 되었다. '96년의 사우디 국가예산은 원유가격 14달러를 전제로 재정적자를 약 40억달러로 예상했으나, 현재의 유가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평균 원유가는 20달러를 약간 밑돌게 되므로 당초 예산대비 140억 달러가 늘어나 14년만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가 상승에 대해 주로 수급면에서 검토했으나, 최근의 불안정한 걸프지역의 정치정세도 시장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미국의, 미사일 공격 중동 반발조례

금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서도 나타났듯이, 걸프전쟁을 계기로 중동지역내에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온 미국에 대한 중동의 반발이 예상 이상으로 거셌다.

특히 사우디에서는 '95년 11월과 '96년 6월에 駐사우디 미군을 표적으로 폭탄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회교원리주의 세력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근년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이 왕정에 대한 불만과 이를 뒷받침해온 미국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까운 장래 사우디에서 이란혁명과 같은 정치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예상되나, 최근 사우디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정세가 석유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도 있다.

한편 쿠르드족문제는 9월초 이라크정부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민주당이 일단 이라크 북부를 점령하였으나 10월 중순에는 쿠르드 애국동맹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반격하는등 다시 긴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후세인 정권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은 피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터키 등의 협력을 구해, 부분적인 석유수출재개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쿠르드족 문제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재개 시기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향후전망

그러면 향후 석유시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초까지는 이라크의 석유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세계의 석유수급은 비교적 타이트할 것이고 원유가격도 두바이기준 배럴당 20~22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 금년 겨울의 기온이 예년보다 낮으면 유럽·미국의 재고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1~2달러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1월 세계의 석유수요를 전망하면, 수요면에서는 앞으로도 아시아개도국의 증가율이 커지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80만B/D 년율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급면에서는 북해와 중남미등 非OPEC산유국이 130만B/D전후의 증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OPEC원유에 대한 수요는 현재보다 약 50만B/D 증가에 머물러 2,640만B/D 전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97년에도 이라크원유가 수출되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등 일부 OPEC회원국이 계속 생산을 늘려도 두바이기준 배럴당 18~22달러 전후로 계속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라크가 수출을 재개하면 가격인하에 대한 압력이 거세져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16~20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일본경제신문 '96. 10/30>(주정빈 譯)